

여사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3월
2026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도당동지점 거래고객
대산산업 조증호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 거래고객
클래스병원 임석민 대표

“볼트 하나로 모두의 삶을 바꾸자”

산업용 볼트 제조 기업 S사

“빛으로 일상을 지킨다”

LED 삼균 조명 개발 P사

“자율형 로봇 기술로 인간을 자유롭게”

완전 자율화 로봇 개발 P사

이 땅의 모든 기업이
그 사명을 다 이루도록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그 옆에

 IBK기업은행



- 04 여성시대 특집
우리 삶이 시가 될 때
- 16 이달의 편지
'꿈을 이루었습니다'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대산산업 조증호 대표
-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클래스병원 임석민 대표
- 80 코너 속 편지
'최고의 공상' 외
- 109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천천히 천천히
- 112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일본 어학연수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6년 3월 10일 발행인(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박정연, 이용선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경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성시대 50주년 기념 필사집

우리 삶이 시가 될 때



여성시대 50주년 기념 필사집
 <우리 삶이 시가 될 때>에 실린 편지글을
 여성시대 당당이이님들과 함께 써보았습니다.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눈으로 읽고 손으로 써주신 귀한 필사,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조관희

행복이란 생각하기 나름이고,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얼마든지 내 손에 닿을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여름내 카워든 곡화에 맺힌 꽃망울을
아침저녁으로 들여다보면 언제쯤 활짝 웃어줄까
가슴 선례며 기다리는 그런 행복!
냄비에 밥을 비벼 숟가락 두 개 꽂아
식탁에 마주 앉아 같이 먹을 사랑이 있다는 그런 행복!
내가 보내준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손주들 모습을
동명상에 담아 보내주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살뜰하고 정 많은 대느리가 내 곁에 있다는 그런 행복!

이 많은, 크고 작은 행복들!

따뜻한 손가락

당당이

제 나이 스물 세살,
 내가 쓰지도 않은 뿔천만원이나 하는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 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아- 이제 삶을 끝내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밤을 보내고... 마지막 아침밥을 먹으러
 밥상앞에 앉았는데 엄마가 제 손가락과 젓가락을
 두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날이 쌀쌀해서 손가락이 차갑네. 손가락 차다고 밥딜 먹을까봐
 엄마가 따뜻하게 덮혀줬어. 한 그릇 다 먹고 출근해.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힘내서 살지..."
 손가락이 너무 따뜻해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손가락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2026. 1. 9 김민지

신물에게 배운 인간관계



나의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자칫하면 상대를 짓누를 수도
있다는 걸 신물들이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신물이 처음 시들어갈 때 눈치도 못 채고
더 힘들게 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면
비안해집시다. 하지만 덕분에 이제는 조금 더
섬세해진 마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떤 관계는
'좋은 일절에 한 번' 같은 간격이 필요하겠지요?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무뎠어지지 않게
필요한 만큼의 빛, 필요한 만큼의 물만 주면서
꽃이 피는 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아끼고 바라봐주려 합니다.

어른들의 성적표

임준영 2022



성적표는 **학교** 다닐 때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제는 **등수도** 없고 **점수도** 없는 **세상**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보다 더 심한 **성적표 세상**입니다.

조직 구조상 누구든 각 **직급**에서, 각 **연차**에 맞게
자신만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을 테지요.

누군가는 웃으면서, 누군가는 슬퍼하면서 말입니다.

어른들의 성적표 점수도

본인의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참으로 **어른스러울** 거예요.

덧붙여 좋은 **성적**이 나온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축하와 **인정**의 박수를 보내고,

안 좋은 **성적**이 나온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갖는 것도요.

그래야 제 **성적**이 좋을 때 남들에게 **축하** 받고

제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겐 아직 싸움 받아줄 상대가 있다
/ 이현숙

평소에 누워 있는 내 또래의 사람과
리석에 새겨진 남겨진 가족에 대해 생각합니다.

누구든 먼저, 혹은 나중에 홀로 남는 거지요.

그래도 나면 사랑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서로 완전히 다른 시간에 속하게 되겠지요.
남편과 나까지도 어렵없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찮은 일로 다투며
미움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린 아직 같은 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미워하고 눈물 흐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나의 싸움을 받아줄 상대가 있습니다.

혼자 남아 있을 상대에게, 싸움의 기억보다

아름다운 추억의 장면을 남겨주려고 노력해본 적 있었단건?
나는 나 자신과 남편에게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Date

수제하는 방법 / 김민우

내가 처음 학교 인화하면 화, 거품이 많은 수제를 받아와서

업장인 양의 수제에 미리 질질서 질질매고 있을때

고민은 내게 다가와 "그거들지아나 쉽게 할수있어" 했지요.

나는 고민이 그 말에 누가 변절하면지요.

"차원이 맘 가라앉히고 자고 씨.

세어 보지도 않고 그냥 쓴다면, 어는 다 되면 할것 같고 때

그도 기본, 변질 주는 살려서 하고 내게 다 해고 건

그런 느낌이야."

고의 가렸을 그 말도 받고 있는 편도 아니었어.

제상에 안고있고 다윈도 있을 수 없지.

원래 해안도, (이수) 해안도, (이수) 해안도, (이수) 해안도

어려웠어.

BRAND NEW LIFE STYLE [THE RED]

1. 우를로 라는 사랑을 꿈꾼다 / 양인자

좋은 인연으로 마감되기를.

그래서 우를로도 기도한다.

쓰임에 서로 희인하자 안한련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작은 마음

회개해서 가짜로 심어도 진짜 열매가 열린다.

라도 사랑을 심어보는 일이다. 사랑이라는 나무는

그늘이 크로을까, 외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나의 지

알은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랑을 미워한다는게 지가

우리의 가슴은 미움을 담아두기엔 적함하지가

어려울뿐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

이디현

생각해보면 어떤 기업을 간직하느냐는
내 선택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었습니다.
미련하게 끊어지고 있던 나쁜 기업의 짐 भार이를 내려놓으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기업은 사실 별다른 힘이 있는데 그것을 부둥켜안고
그저 내게 이질 수 없이 주어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지난날 무직한 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이제라도 지난 기업으로부터 즐거워해진 것에 참 감사합니다.

가자미조염을 해야겠다
김시연, 2021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사람에게 말하러 싶다.
그래도 건강해지고.
당신같이 밤이 아픔을
쉽게 밤을 사랑이라해도
당신 자식들을 내 가슴 슬픔을
겪지 않게 바라고...
나는 우리 엄마가 훌륭하게
자식 키우려 해서
당신이랑은 조부모 안된게
품이 넣은 사랑이니까,
당신은 나에게 칼을 주어도
나는 당신을 위해
기다려 주겠다.

이영희
2016 1/9



MBC 라디오 <여성시대> 50주년 기념 필사집



라디오로 듣던 위군의 편지들 손 글씨로 써보는 시간



우리 삶이 시가 될 때

양희은, 나태주,
박준, 잔나비 최정훈
추천 도서



여성시대 지음 | 272쪽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전해온 수십만 통의 편지 중
마음을 움직인 100편의 '인생 문장' 필사집

'당당이' 청취자의 편지부터 박완서, 나태주, 양귀자 등 명사의 글귀까지



- 16 꿈을 이루었습니다
- 18 아버지의 구두
- 22 만뚝집에서 만난 인연
- 25 참 행복하다
- 31 단톡방 암호
- 36 사랑하는 고 여사님
- 39 아버지의 유산
- 46 사랑을 향해 가는 중
- 50 고향의 맛
- 54 엄마도 엄마가 있다
- 59 청주혜원학교 선생님들께



Letter 01

꿈을 이루었습니다

문아람 | 서울 은평구 수색로



저는 2014년 8월 4일 월요일, 엠비시 라디오가 여의도 시대를 접고 상암 신사옥으로 이사와 방송을 송출하는 첫날 여성시대 3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코너에 직접 출연하는 영광을 얻었던 문아람입니다.

<26살도 공감받을 수 있나요? 다시 꿈을 꾸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꿈을 가득 담아 사연을 보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연이 채택되어 라디오 부스 안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양희은 선생님과 강석우 선생님을 직접 뵈며 제 꿈을 두 분의 선생님과 여성시대 담당이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양희은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의 노래 '상록수'를 피아노로 연주했던 장면은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2014년 당시 저는 음대를 졸업하고 '나만의 무대'를 찾으

러 거리에 나온 거리 연주자였습니다. 유학이나 대학원을 가기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꿈’이 주는 힘만 믿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피아노 앞에서 많은 분을 만나고 연주가 하고 싶어서 신촌 거리에 설치된 피아노 앞에서 정기 공연을 하기 시작했던 2014년. 그때 여성시대에서 직접 신촌을 방문해 주시고 촬영해 주셨던 거리 공연 사진은 제 무대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4년의 거리 공연, 계속 걸었던 꿈길. 여성시대 라디오 부스에서 새긴 다짐과 외침을 시작으로 꿈길을 걸었고 이제는 꿈을 이룬 사람이 되어 다시 한번 청취자로 사연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에서 진행하는 북뮤직콘서트의 공연기획자이자 진행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책도 발간하여 나의 언어로 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작가로 또 강연을 연출하는 강연 연출가가 되어 제가 그렸던 그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말하고 하루하루 꿈꾸는 대로 살아갈 때 ‘꿈’이 현실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수년 동안 경험하면서 2014년 여성시대와의 만남을 매일 기억했습니다. 꿈길이 시작이었던 여성시대에 이제는 ‘꿈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꿈을 꾸면서요.

꿈을 이루는 청년, 다시 꿈을 꾸는 청년으로서 제 이야기를 이곳에 새기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성시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Letter 02

아버지의 구두

애청자



저는 지난 5년간 친정과 인연을 끊고 지냈어요. 1남 4녀 중에 막내딸이었던 저는 아들을 바라던 중에 또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쁨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남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는 그나마 있던 관심까지 뺏기면서 완전히 후순위로 밀려났지요. 항상 부모님과 언니들의 말을 잘 듣던 저는 그냥저냥 존재감이 크지 않은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았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고시원에 살면서 낮에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컵라면을 먹으며 공부했습니다. 부족한 수면시간 때문에 코피를 흘린 적도 여러 번이었



지요. 그러다 드디어 제가 원하던 정년퇴직이 보장되는 회사에 합격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단 한번도 받지 못했어요. 정확히는 도움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큰언니의 잘못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뻔한 적도 있었지요. 결혼할 때도 아무런 지원 없이 제가 번 돈으로 시작해야 했어요. 아이를 낳을 때도 친정에서는 아무런 축하 선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이런 사정에 대해 결혼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고맙게도 이해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가족이라도 저는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고 싶었어요. 그러다 딱 한 번 언니들에게 일이 생겼을 때 저도 사정이 넉넉지 않아 돈을 보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이 ‘재는 맞벌이를 해서 여유가 있을 텐데도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는 게 패씸하다’며 뒷담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지요. 언니들을 거들며 제가 이 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한 저희 엄마에까지요. 그렇게 연을 끊고 살게 된 겁니다. 친정에서 함께한 아이 돌잔치를 마지막으로 왕래 없이 지낸 지도 5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저는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육아에 살림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로 인해 스트레스받기도 싫었고 언니들도 마찬가지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가족의 도움 하나 없이 같은 회사에서 교대근무를 해가며 육아를 해나갔지요.

그러다 작년 겨울 아버지께서 심정지로 병원으로 급히 이송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계시는 대구 병원으로 내려갔어요. 중환자실에서 각종 의료 장비를 매단 채 눈을 뜨지 못하고 계신 아버지를 보고 나니 가족에 대한 서러움, 원망, 미움 같은 게 한 번에 사라지더라고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상을 치르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남편과 휴가를 맞춰서 엄마 혼자 계시는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라서 집 정리뿐 아니라 아버지의 유품 정리도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을 불러 함께 집을 청소하던 중에 신발장에서 아버지의 낡은 구두와 옷장 안에서는 새

것으로 보이는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남동생이 그러는데 생전에 아버지께서 자꾸 헌 구두를 신고 다니니까 새 구두를 사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새 구두는 계속 닳아서 옷장 안에 고이 모셔두고 낡은 구두를 고무줄로 묶어가면서 계속 신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무줄로 묶인 낡은 구두를 보고 쓰러지듯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아껴 신으셨던 그 낡은 구두는 제가 10년 전에 결혼하면서 사드렸던 거였어요.

내가 마음을 풀고 조금만 일찍 인사를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구두도 다시 사드리고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컸다고 보여드렸을 텐데 하고 정말 후회했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꿈에서라도 아버지를 뵙고 싶지만 희미한 모습밖에 보이질 않네요.

이번에 저희 남매들이 엄마를 모시고 온천에 가려고 일정을 맞추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남편은 다 같이 모이려고만 하지 말고 시간 나는 사람끼리 다녀오면 어떠냐고 해서 세 식구가 엄마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 상을 치르면서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더 깊어졌어요. 결혼 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외아들이라서 상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막냇사위인데도 만사위처럼 일을 꼼꼼히 잘 챙기는데 다른 식구들도 남편한테 고맙다고 덕분에 잘 보내드렸다고 인사하면서 제 어깨를 올려줬네요. 앞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회도 자주 사주려고요.

Letter 03

만들집에서 만난 인연

이은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우리 동네에는 30년이 훌쩍 넘은 수제 만들집이 있어요. ‘손만두’라는 글자가 반쯤 벗겨진 낡은 간판이지만 맛 하나로 동네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저도 30년 넘게 다니다 보니 사장님 부부와는 어느새 나이도 비슷한 동네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냉장고에 마땅한 저녁거리가 없어서 만두나 사 가야겠다 싶어 만들집에 들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솥에서 만두를 찌는 데 5분쯤 걸린다기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참이었죠.

그때 자전거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고 여성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대충 보아도 저희 또래인 60대 초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몸이 참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가게를 둘러보

더니 “사장님, 자전거를 8시간이나 타고 와서 배가 너무 고프는데 제일 빨리 나오는 길로 주이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어디서부터 타고 오셨길래 8시간이나 타셨어예?”

알고 보니 그분은 포항에서 출발해 대구를 들러 상주까지 가는 나 홀로 자전거 여행 중이더라고요. 사장님도 저도 너무 놀라서 대단하시다며 연신 감탄했죠. 그런데 잠시 후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근처에 하루 묵고 갈 데가 있을까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더 못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 동네는 여관도 모텔도 하나 없는 동네라는 거였죠. 사장님도 난감해하셨어요.

“한 10km쯤 가면 모텔이 하나 있긴 한데 요새 영업하는지는 모르겠네예.”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0km라고예? 그건 도저히 못 가겠는데 우짜노~”

순간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얼마 전 시집간 딸이 쓰던 방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에 저희 집이 바로 이 뒷골목인데 괜찮으면 시집간 딸 내미 쓰던 방에서 주무시고 가실랍니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요즘 세상에 처음 본 사람 집에서 누가 자겠노?’ 싶어 괜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고단했는지 이리시더라고요.

“음마야,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지예요.”

그렇게 우리는 만두를 포장해 제 집으로 함께 갑니다. 누추한 집이지만 여행 중인 분께 편히 쉬실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만두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포항에 산다고 하기에 “저희 사돈도 포항에 사시는데예~” 했더니 어디 사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사돈이 사는 아파트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만두를 드시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으셨어요.

“몇 동 사시는데예?”

“101동에 사시는데예.”

“그라도 몇 호 라인인데예?”

알고 보니 저희 사돈은 6층, 그분은 10층. 심지어 같은 라인에 사는 이웃이었던 겁니다. 사돈 사진을 보여드리니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나누던 사이라며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다고 한참을 웃었네요.

그분은 다음 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상주로 여행을 이어갔고 여행을 마치고 포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겨울 별미 과메기를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만두 한 봉지 사러 갔다가 여행자가 하룻밤을 묵어갔고 여행자인 포항 이웃과 인연이 된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은 참 넓은데 한편으로 또 참 좁다는 것어요.

Letter 04

참 행복하다

장광숙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저 는 올해 예순여덟인 횡성에 사는 농부이자 주부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독서 도우미입니다.

스물네 살에 결혼해 삼남매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이제야 감히 “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글을 적어 봅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다 쓰려면 책 몇 권으로도 모자라겠지만 두서없는 글이나마 마음을 담아보려 합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횡성 시골로 시집을 왔을 때 처음엔 낯선 환경과 고된 일에 밤마다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가운 소리 할 줄 모르는 남편을 그저 벽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부지런하신 시부모님은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소죽을 챙기셨지요. 시부모님은 가마솥에 물을 데워 소여물을 만들어 주셨고 덩달아 저도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무심한 세월은 흘러 연년생 아들과 네 살 터울 딸을 낳았지요.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이 젊으셔서 농사며 축사 일이며 모든 일을 주도하셨고 저희 부부는 곁에서 거드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버님과 달리 게으른 편이라 아버님은 만날 못마땅해하셨고 밥상에만 앉으면 핀잔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심성 하나는 착한 남편은 군소리 없이 자기 일을 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큰 사고가 닥쳤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허리를 심하게 다친 것입니다. 아마도 나의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나 봅니다.

한 해 농사를 거의 접다시피 해야만 했고 남편은 아픔을 잊으려 술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술을 먹고 농기계 작업을 할 때면 온 식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학부모 임원이며 단체 동아리 활동을 하러 다닐 때 잔소리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농사일 거들랴, 아이들 뒷바라지하랴, 바깥 활동하랴 눈코 뜰 새 없었지만 집안일 안 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여전히 마시긴 했어도 그때까진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자라서 학교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 작은아들과 딸은 제 전공에 맞춰 취직도 하고 짝을 찾아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단체 활동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행안부 장관상에 이어 몇 년 뒤에는 농림부 장관상을 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틈틈이 휴대폰 메모장에 글도 썼습니다. 슬플 땐 슬픈 이야기, 기쁠 땐 기쁜 이야기, 속상할 땐 속상한 이야기를 일기처럼 쓰는 것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술 마시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잔소리를 피해 술병을 여기저기 감춰 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먹고 힘이 달리니 이제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술을 먹으면 밥을 한 수저 정도씩밖에 안 먹으니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일을 못 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더 커진 남편은 그만큼 술 먹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손주들이 태어나니 남편의 술 취한 모습은 더 보기 싫었습니다. 집에 손주들이 오면 술에 취한 모습으로 자꾸 집적거리고 장난을 치는 할아버지께 아이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들 판에는 아빠 엄마 힘들다고 주말이면 농사일 거든다고 와서 기껏 힘들게 일하고 갈 때 아빠 술 마시는 모습에 속상해하며 가는 걸 보면 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아버님께서 102세에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남편은 그나마 비몽사몽하던 일조차도 이젠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다가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고 거의 맨정신일 때가 없었습니다. 취하면 잠만 자고 일어나면 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바깥엔 할 일이 천지인데 술에 취해 그렇게 누워 있는 꼴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온갖 독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아침이면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시다. 술 취한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습시다.

친정 식구들은 알코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스스로 끊겠지 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습시다. 다행히 아들과 딸은 “아빠가 힘들어서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드리자”며 저를 달래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이 와서 일을 도와준다 해도 하우스 작업하랴, 눈에 약 치고, 물 보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하우스에서 일하고 오다 보니 보건소 출장 검진 차량이 와 있었습니다. 마침 남편이 검진받는 해라서 얼른 집에 가서 남편을 살살 구슬렸습니다. 검진 차가 코앞에 왔으니 검진받고 아침 먹게 얼른 가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막걸리 한잔했는데 괜찮을까?”

“아니야.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 나오니까 얼른 다녀와.”

등을 떠밀었더니 검진받고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결과지가 도착했는데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간 수치



가 60이 정상인데 999가 나온 것입니다. 나는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재검받아야 한다고 다그쳤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막무가내로 끌고 갈 수도 없고 큰일이었지요. 다행히 며칠 뒤가 아버님 기일이라 아이들이 오면 합동작전을 해서라도 데리고 가야지 하고 일단 병원 예약을 기일 다음 날로 잡아 두었습니다. 예약을 잡아 두었으니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버님 기일엔 술을 마시지 않더라고요. 아들들은 직장에 출근하러 가고 휴가를 내고 온 딸 내외와 병원에 갔더니 교수님이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이러다 급사하고 싶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겁을 잔

뜩 먹고 있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짠했습니다.

그길로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모든 결과가 전 단계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날 소주가 아니고 막걸리를 먹은 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열흘 입원하고 돌아온 남편은 술을 끊고 대신 밥을 한 공기씩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술에 취해 사느라 망가진 치아도 거금을 들여 임플란트 치료 중이고요. 눈만 뜨면 부지런히 밖으로 들로 나가 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보내는 모습을 보니 모든 일이 감사하고 남편이 이제라도 믿음직한 집안의 가장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병원에 진료차 갈 때면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교수님도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들도 손주들도 모두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1월 5일이 아버님 기일이었는데 아이들이 “아빠 술 끊은 지 1주년 기념식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기분 좋은 농담도 합니다.

얼마 전엔 딸네 집에 갔다가 식당에 갔는데 옆자리에서 식사 하고 나가던 어르신께서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자제분들도 잘하고 얼굴에 행복이라고 쓰여 있네요” 하시지 뭐예요.

그래요. 참고 살다 보니 저에게도 이런 행복한 날이 왔습니다. 툴툴이 써놓은 글을 딸이 예쁜 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힘들던 날 입을 땀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이젠 웃으며 입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너무 소중한 우리 가족, 늘 건강하고 올해도 행복하자.”

Letter 05

단톡방 암호

유의태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가 족 단톡방에 급한 문자가 떴다. 아내가 캡처하여 올린 사진에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과태료 부담 대상이 되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되어 있었다. 아들과 딸이 즉각 반응했다.

<엄마,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아내는 몹시 당황한 듯 휴대폰 전원을 끈다고 했다.

<휴대폰을 끄면 은행 알림 문자를 못 받으니 끄면 안 된다.>

<블루투스를 꺾다 켜라.>

<빨리 신고부터 해라.>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라.>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가입 방법>까지 '깨톡 깨톡'

글이 쉽 없이 올라왔다.

우리 가족 단독방이 개설된 이후로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한 적이 있었던가. 말수가 적은 유전자를 지닌 우리 가족은 누군가 글을 올리면 ‘네, 아니요’라는 단답형이나 한참 지난 뒤에 이모티콘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아내는 이미 인터넷 주소를 누른 것 같았다. 어떻게든 사태부터 수습해야 할 것이 아닌가. 다행히 은행이나 사이버수사대를 거치면서 더 이상 나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안도했다. 금융 계통에 근무한 경력과 사소한 일도 의심부터 하는 아내가 무엇에 홀려 이런 소동을 벌였는지 궁금했다. 원인 제공은 주변 상황이 가져온 타이밍이었다.

이틀 전, 이십여 년을 함께했던 김치냉장고가 말썽을 부리더니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던 떡과 자투리 고기, 피자까지 밤새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자 해동이 되어 진물이 묻어나듯 흐물흐물했다. 아내는 새 냉장고가 들어오자 변질된 음식물들을 분류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버리고, 비닐 포장지가 음식물과 엉켜서 섞이거나 분리가 어려운 것은 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아내는 이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다. 성가시거나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분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쓰레기 수거함을 지나칠 때마다 양심을 굶었다.

그럴 즈음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 과태료 부과>라는 사기 문자가 온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지 않은 것인데도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놀러댄 것이다. 그 후 나는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나 종량제 봉투를 처리할 때면 “상기하자 종량제~”라며 놀려댔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등기우편이 오늘이나 내일쯤 도착할 거라는 문자가 왔다. 등기우편은 직접 받지 않으면 우체국까지 가서 찾거나 반송되기 때문에 외부 출타가 잦은 나는 신경이 쓰였다. 그때 마침 010으로 시작되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우체국 배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 우편물이 배달되니 집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화였다. 집을 나서려다 말고 언제쯤 올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달원은 근처 다른 아파트에 배달하고 넘어가면 10여 분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호가 맞는지 집 주소를 확인했다.

“우리 집은 201호가 아닌 1201호인데요.”

그러자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맞는지를 묻고는 몇 가지만 더 확인해야겠다고 했다. 배달하고 넘어간다가나 후딱 갈테니 잠시 기다려 달라거나 하는 자연스러운 어투와 억양에는 연변 느낌이 묻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등기 우편물을 가족이 아닌 내가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의심스러우면 보낸 문자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을 듣고는 의심증이 발동했다. 배달하는 우체국이 어딘지를 묻고 배달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했다. 상대방은 잠깐 당황한 듯하더니 그것이 왜 궁금하냐고 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다시 배달원의 이름과 보내는 곳이 어딘지,



배달하는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를 말해달라고 질문을 쏟아 부었다. 상대방은 우편물을 보고 확인하면 된다고 서초구 반포아파트' 주소를 말했다.

“뭐야? 우리 집은 산본인데 보이스 피싱이잖아.”

내 말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다.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이라는 붉은 글씨가 보였다. 귀에 대고 통화하다 보니 글씨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배달원이라는 사람과 의심도 하지 않고 2분 41초 동안 통화했다. 왜 처음부터 보이스 피싱이라는 의

심을 하지 않았을까. 역시 타이밍이었다. 나는 등기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었고 때마침 등기 우편물을 배달한다는 전화가 온 것이다.

즉시 새로운 사건 뉴스를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

<놀랐어요?>

<당했어요?>

<신고했어요?>

가족 소통이 시작됐다. 아내는 보이스 피싱에 당하지 않은 것도 다행이지만 끈끈한 가족애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고 했다.

아내는 가끔 나에게 ‘오늘은 등기 우편물이 오지 않았는지’를 물어본다. “뭘 등기 우편물?” 되묻다가 ‘종량제 봉투’라고 놀린 것에 대한 복수라는 것을 알았다.

보이스 피싱이 기술과 심리를 결합한 고도화된 범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검찰이나 경찰,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제하는 이른바 음성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니 무서운 일이다.

이제는 아내 전화라도 의심부터 하고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 단톡방에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가족 간의 문자나 통화를 하더라도 의심이 들면 서로를 확인하는 암호를 정하자는 것이다. 우리 가족의 암호는 누군가 ‘종량제’라고 하면 ‘등기우편’이라고 답해야 한다. 그 답을 하지 못하면 보이스 피싱이니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Letter 06

사랑하는 고 여사님

애청자



저는 얼굴도 마음도 천사이신 고 여사님의 33살 막내 딸입니다. 당당이신 어머니를 위해 마음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 생방송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여성시대 녹음본을 꾸준히 듣고 계십니다. 루게릭병으로 와상 생활을 하며 눈깜빡임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계신 저희 어머니께 여성시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봅니다.

엄마~

늘 마음속으로만 하다가 이제야 이렇게 편지를 적어 보

내요. 엄마가 누워 계신 지도 어느덧 3년째가 되어가네요. 작년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엄마도 아빠도 나도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작년인 25년은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감사하고 배려하면서 많이 안정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엄마를 케어해 주시는 좋은 두 분의 선생님을 만난 것도 우리 가족에겐 큰 행운이었고요.

4년 전, 엄마의 병명을 확진 받았을 때 우리 가족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취업하고 이제는 부모님께 효도 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 해 드린 것 같아서 저 자신이 너무 미워 많이 자책하며 무너졌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과 아빠와 오빠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도 울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모시고 아빠와 대학병원을 여러 번 다니면서 점점 작아지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내가 두 분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러한 과도기를 지나 조금 안정되며 집에도 하나둘 좋은 소식이 생기고 엄마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로는 다 못 할 만큼 마음이 기뻐어요. 그때부터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자고. 욕심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더 나빠지지 않고 엄마의 웃는 얼굴을 하루라도 더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엄마는 우리 가족의 보배예요. 그러니 가족에게 절대 미안



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엄마가 제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착하고 사랑을 많이 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저는 아직 갚아야 할 게 참 많거든요.

엄마, 올해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함께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요. 엄마,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요.

- 하나뿐인 막내딸이 드립니다.

Letter 07

아버지의 유산

박철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낭내기길



4월 어느 날, 갑자기 살이 10kg 가까이 빠진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다. 의사가 보호자만 남으라고 했다.

“아들이신가요? 말기 암입니다. 뼈까지 전이된...”

의사는 건조한 말투로 컴퓨터 화면과 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순간 나는 무슨 드라마의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적당한 표정과 대사를 생각했지만 그럴싸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정이 잡히면 며칠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지요.”

“고칠 수 있나요?”

“아니오.”

“그럼 검사는 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그럼 얼마나 사실 수 있는지…”

“길면 1년…”

아버지의 사망 예고를 받는데 단 1분이면 족했다. 답답한 척 진찰실을 돌아 나오는데 어지럽고 코피가 날 것 같았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뭐라냐?”

나는 무척 쿨한 척 대답했다.

“암 말기래요. 근데 제가 아는 교회 권사님 아버지도 암 말기였는데 아무 치료도 안 하고 10년 잘 살다 가셨대요. 요즘 암은 감기예요. 그냥 감기. 다 걸려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신 건지 아닌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다. 나이 팔십이 넘도록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소화제 등 약 한 번 안 드신 무쇠 같던 아버지였다.

그로부터 9개월, 아버지와 나 그리고 아내는 암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일상의 모든 일정은 아버지의 검사와 진료, 반복되는 입원과 퇴원에 맞춰 짜야 했다. 모든 음식은 암을 극복하는 식단으로 짜였으며 종일 암과 관련한 인터넷 정보를 검색했다. 전화기는 24시간 대기하고 즐거운 일상이나 기분은 허락되지 않았다. 직장, 집, 심지어 잠자는 시간에조차 암을 생각하고 암과 싸워야 했다.

암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와 아내의 삶 모두를 점령해 버렸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감정을 감추고 즐거운 척해야

했다. 남들에게 위로 따위를 구걸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버지 앞에서 그랬다.

“아버지, 아버지 안 죽어요. 최소 10년은 더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항암 약 부작용으로 몸이 퉁퉁 부었을 때도 마음을 감췄다.

“아버지, 얼굴에 살이 오르니 오히려 보기 좋네요.”

참 이상했다. 별로 슬프지도 걱정되지도 않았다. 누구나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나와 아버지에게 올 거라고 인정하지 못했나 보다.

가끔 아내는 물었다.

“당신 괜찮아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진료 후 아버지를 댁에 모셔다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추고 있는데 자동차 앞 유리에 갑작스레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투둑 투둑둑 우두두두둑… 순간 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견고하게 버티던 감정의 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무도 없는 차 안은 통곡하기에 적당했다. “뽕뽕” 뒤차가 경적을 한참이나 울리도록 나는 아이처럼 영영 소리 내 울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어느 날, 병실 침대 옆을 지키는데 누군가 낯선 이가 침대 맞은편에 마주 앉았다.

“누구세요?”

“죽음이요.”

“아 죽음… 그렇군요. 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나요?”

“이기적인 생각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나요?”

“처음부터.”

“아버지를 언제 모시고 가려고요?”

“글쎄요.”

수개월 동안 죽음은 아버지 곁에 머물렀고 나는 오히려 죽음과 친해진 느낌이였다.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나에게도 오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죽음을 만나며 나는 오히려 삶을 생각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은 죽고 영혼만 살아남지요.”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천국 아니면 어두운 어딘가로 가지요.”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버지는 먹으면 토하고 링거 바늘을 더 이상 꽂을 곳이 없을 만큼 혈관이 말라비틀어졌다. 마약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가 끊임없이 투여되어 아버지의 의식을 말려버렸다. 진통 때문에 몸을 뒤틀지 않도록 아버지의 팔과 다리를 병원 침대 손잡이에 묶어야 했다. 내 안에서는 끊임없는 외침이 들렸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하루하루의 삶은 그 자체로 치열한 투쟁이였다. 불효자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차라리 아버지의 죽음이 더 빨리 오기를 소망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이야기했다.

“아버지, 조금만 견디세요. 아픔도 고통도 없는 좋은 곳으로 곧 가실 거예요.”

아버지는 희미한 눈동자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버지, 제가 끝까지 있을게요. 제가 뒤처리 다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세요.”

오래 산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생각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죽음에게 말했다.

“좀 서둘러 줄 수 없나요?”

“준비가 다 되어야 가실 거예요.”

“무슨 준비요?”

“당신 스스로 차차 알게 될 거요.”

죽음이 함께 머물던 9개월간 아버지의 병실 침대 옆을 지킬 때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죽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내 남은 삶을 새로 써 내려가는 일기장이 되었고 내 하루의 가치와 무게는 그만큼 더 크고 무거워졌다. 나의 욕망과 아버지 통장에 남아있는 써보지도 못한 돈 몇 푼을 생각했고 내 남은 삶의 계획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45분 아버지의 얼굴은 더는 고통이 없는 평안한 표정이 되었다.

누나와 여동생은 아버지 얼굴이 너무 차갑다며 동동거리

며 우는데 의사는 담담하게 사망진단서를 툭 내밀고는 돌아서 가버렸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은 오히려 잠잠해졌다. 아버지의 영혼이 누나와 동생을 지나 스르르 일어났다.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나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를 보냈다.

순간 눈앞에 푸르고 울창한 숲이 펼쳐졌고 멀리 한없이 눈부신 길로 아버지는 환한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애써 부르지 않았다. 순간 숲의 문이 닫히고 나는 아버지 없는 병실에서 있었다.

토요일인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아버지 계신 병원에 들렀다가 친지 결혼식에 가려고 계획했다. 결혼식 하객으로 가려고 말끔히 차려입고 나온 검은 양복은 상복이 되었고 빨간 넥타이는 검은 넥타이로 바뀌었다.

그제야 할 바를 마친 듯 죽음은 나를 바라보며 인사했다.

“이제 갈게요.”

“어디로요?”

“누구나 가는 그곳으로 갑니다.”

“미리 알려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어젯밤에 알려 드렸습니다만...”

아차! 그제야 어제 새벽꿈이 불현듯 떠올랐다. 꿈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내게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라며 종이 10장을 주기에 받고 말았다. 그리고 정말 그날 오후 의사는 사망진단서 10장을 내게 내밀었다.

“아, 그랬군요. 몰랐어요.”

“슬퍼 말아요. 그리고 남은 삶을 소중히 살아요.”

죽음은 내게 희미한 미소를 보이고는 병실을 돌아나갔다.

어쩌면 아버지는 내가 삶의 의미를 다 알 때까지 힘겹게 기다리셨나? 아버지가 내게 주고 싶었던 유산이 이것인가? 죽음이 삶의 선생일 줄이야!

아버지가 떠나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나는 묻는다.

“혹시 오늘이 그날인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나? 나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는 죽었다. 죽음이 생명의 끝인 건 맞지만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나와 관계도 끝이 아니다. 아버지는 내가 사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아버지가 머물던 모든 곳, 아버지가 쓰던 물건마다 늘 함께하며 내게 조언하고 깨달음을 주며 내 걸음을 인도하는 안내자시다.

어차피 훗날 천국에서 만날 테니 ‘Good bye’가 아니라 ‘See you’.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문득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어진다면 어찌지? 혹시 이 밤 내 꿈에라도 오신다면 아버지를 안고 실컷 물어보리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Letter 08

사랑을 향해 가는 중

장영봉 |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어젯밤에도 집에 돌아와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주 한 병을 열긴 했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술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하루를 정리할 무언가가 필요한 밤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조금 길었고 말을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연애를 하지 않게 되었을까?’

누군가를 만나고 좋아하고 설레는 감정이 싫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길을 걷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면 괜히 한 번 더 돌아보기도 하고 드라마 속 연인들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가볍게 마음을 내주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기쁘기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이 만남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혹시 상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나 때문에 누군가의 하루가 더 무거워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보다 현실이 먼저 말을 거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단순했습니다. 작은 문자 하나에도 하루 기분이 달라지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가도 다시 들여다보고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랑

이 삶의 중심이었고 사랑이 힘든 날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있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필요했고 여유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벅찬데 누군가를 챙기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나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마음까지 안는 게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를 포기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게 아픈 이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책임질 만큼 아직 단단하지 않다는걸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더 솔직해집니다.

사실은 아직도 누군가를 좋아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다려보고도 싶고 퇴근길에 함께 걷고도 싶고 말없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를 '별일 없어서 좋다'고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하다가도 이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요.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군가의 온기는 더 또렷하게 그리워집니다. 다만 그 온기를 붙잡기에는

제가 조금 지쳐 있을 뿐입니다. 사랑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 앞에서 부족한 나 자신이 먼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 혹시 비슷한 마음으로 여성시대를 듣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연애를 쉬고 있는 분들, 사랑을 잠시 내려놓은 분들,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분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고요. 더 잘 사랑하기 위해 조금 더 단단해지기 위해 잠시 멈춰서 있는 시간이 지금일지도 모른다고요.

오늘도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때는 계산보다 마음이 앞서서 사람이 되고 싶고 조건보다 마음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이 사연이 누군가의 아침에 작은 공감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시대를 듣는 분들의 오늘 하루가 조금은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때는 계산보다 마음이 앞서서 사람이 되겠다고요. 조건보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를 먼저 믿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아직은 그럴 용기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언젠가는 사랑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남겨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모두 너무 늦은 건 아니라고, 지금의 이 시간도 사랑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다고 서로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Letter 09

고향의 맛

이준근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저는 재작년 추석에 7개국 외국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함께 추석 음식을 나눠 먹었던 사연을 보냈던 청취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때 인연이 된 친구 중 한 명의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 이렇게 다시 글을 씁니다.

시간이 흘러 그 친구 중 한 명이 지난해 12월 석사 과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스, 케냐 국적의 친구입니다. 키가 187cm나 되는 큰 체구라 앉아 있을 때 말고는 늘 고개를 45도쯤 들어올려야 대화할 수 있었던 친구였죠. 저와 동갑이었지만 생각은 훨씬 깊었고 배려와 겸손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스는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아내와 네 아이를 케냐에 두고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장학금을 모아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는 모습이 늘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는 일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그의 성실함은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약 3주를 남겨두었을 무렵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스의 친형이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강한 아프리카에서 특히 친형과 매우 가까웠던 모세스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졸업과 여러 행정 절차 때문에 곧장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 슬픔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스는 며칠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 체중이 4kg이나 빠졌다더군요. 저희 부부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에게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케냐 음식을 만들어주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스가 평생 먹어왔을 고향의 맛이라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평생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케냐식 소고기 스투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보며 따라 했습니다. 필수로 들어가는 향신료는 수소문 끝에 서울에 사는 친척에게 부탁해 이태원 식료품점에서 구입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이라 ‘이게 과연 맞는 맛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위로하고 싶은 마음 하나만은 분명했

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만들어준 음식이 큰 위로가 된다고 믿거든요.

정성껏 만든 소고기 스투와 갓 지은 밥을 용기에 담고 빼돌 빼돌한 글씨로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음식이 식을까 봐 서둘러 보온 가방에 넣고 모세스가 지내는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모세스는 음식도 못 먹어 몸은 야위었고 너무 많이 울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넨 음식과 편지를 보자마자 커다란 덩치의 모세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부부도 모세스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세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케냐에서 먹던 비프스튜 맛과 똑같아요. 이걸 음식 그 이상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희 부부도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스의 졸업식이 끝나고 가족이 있는 케냐로 출국을 앞두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또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짐도 많을 텐데 가볍고 의미 있는 선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가 늘 쓰고 다니던 야구 모자가 떠올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로 모세스 이름을 새긴 모자를 선물하자.’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작해 주는 곳이 있더군요. 모자를 건네자 모세스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출국하는 날 한글로 ‘모세스’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비행기에 탑승했습



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하고 감동을 주는 건 결코 비싼 선물만이 아니라는 것. 내 마음과 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제 모세스는 가족이 있는 케냐로 돌아갔지만 저는 또 남아있는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여성시대 가족 여러분, 저의 이 작은 다짐을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Letter 10

엄마도 엄마가 있다

박진숙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로



작 은딸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병원에 조직검사 하러 가야 하는데 수아 좀 봐주면 좋겠어.”

“어디가 아픈 거야?”

딸은 별일 아닌 듯이 전화했지만 조직검사라니 걱정되어서 급한 일을 처리하고 손녀를 봐주기로 했다.

딸은 불임으로 결혼 7년 만에 시험관시술로 아이를 낳았다. 육아휴직 하며 양육에 전념하고 있는데 유방에 종양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야 한단다.

나는 퇴직 후 계약직 활동을 하고 있어서 2월까지의 시간이 있어 짐을 챙겼다. 출발 전날, 작은딸은 전화해서 ‘아무것

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만 청국장을 띄우고, 인근 사과 농원에서 사과 한 박스 사고, 냉동실에 있는 산나물, 손질한 냉동오징어 등을 챙기고, 동치미 무를 채 썰어 무치고, 묵은지는 볶고, 갓김치도 한 통 담았다. 청계 알도 한판 챙기니 작은 아이스박스가 차고 넘쳐서 마트 가방에도 차곡차곡 담았다.

시골 할머니들이 아들딸네 갈 때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을 나서는데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내가 그런 할머니가 되었다.

먹을거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도착하니 작은딸은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전화했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 놓고 먹을거리를 냉동실, 냉장실에 나눠 넣으면서는 웃고 있었다.

3개월 만에 보는 8개월 된 손녀는 다행히 낯을 가리지 않았다. 이유식을 먹기 시작해 아주 통통해서 안아주기에 벅찼다.

유난히 키가 작아서 신발주머니를 땅에 끌며 초등학교에 다니던 우리 집 꼬맹이 둘째 딸이 아이를 낳아 키우다니 세월 참 빠르다. 꼬맹이가 애를 낳아 키우니 체력도 달리고 챙겨 먹기에 힘겨워 대충 먹은 듯 얼굴이 상해서 내 마음이 아팠다.

유방 종양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간편식품으로 가득하다. 사부인께서 틈틈이 챙겨주시지만 간편식, 배달 음식을 먹고 있는 사위가 퇴근길에 장어덮밥을 사 들고 왔다. 덕분에 별식을 잘 먹었다.

평소 집안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 작은딸인데 집안은 온통 손녀 물건으로 어수선하고, 8개월 손녀 옷장은 벌써 사계절 옷가지로 그득 찼고, 식탁, 싱크대조차 젖병 소독기, 아이 정수기, 분유통 등 모든 살림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손녀딸에게 이유식과 분유를 먹이고 재우면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팔 베고 스프르르 잠이 듭니다~”

작은딸이 옆에서 자장가에 괜히 슬퍼진다며 물었다.

“엄마, 우리는 어렸을 때 어땠어?”

“너희는 정말 착했지. 방에 재워 놓고 밭일 나가면 자다가 깨서 높은 문지방에 매달려 밖을 내다보며 울다가 지쳐서 또 잤지.”

잠든 손녀를 눕히고 작은딸이 눕고 그 옆에 할미인 나까지 3대가 나란히 누웠다. 작은딸이 출산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나란히 누워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학 진학 후 직장 다니다가 결혼했으니 품 안에서 떠난 자식이 되어 살갑게 지낼 날이 별로 없다.

작은애는 요즘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많이 난단다.

“아빠 살아 계시면 우리 수아 정말 예뻐하셨을 텐데. 그치, 엄마?”

‘자식 낳아 키워야 부모 마음 안다’는 어른들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다.

사십을 바라보는 작은딸은 막내라서 큰딸보다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 아빠가 오후에 엄마보다 일찍 장사가 끝나면 탑차 트럭을 끌고 너 데리러 매일 어린이집에 가셨지.”

시골살이하다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원주에 단칸방 얻어 이사해서 탑차에 채소 싣고 다니며 장사하던 남편은 성실했다. 남편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가업을 이어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돌보던 농사꾼이었다.

손녀를 돌보며 내 신훈 시절에 딸 키우던 생각이 났다. 시골 청년이던 남편 따라 강원도 산골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먹고 사는 일이 험겨웠다.

모유 수유를 못했는데 분유 사 먹일 여유가 없어서 쌀을 갈아 미음을 쭈어 먹였고 천 기저귀를 개울에서 빨았다. 요즘 같은 한겨울에 꿩꿩 언 개울을 도끼로 구멍을 내서 기저귀를 빨아 바위에 걸치면 빨래가 금세 얼었다. 손은 빨갱게 얼어서 뼈마디가 시려서 몸서리를 쳤다. 친정엄마가 와서 ‘쌀순이’라 불리던 탈수기를 사주시기 전까지 바지랑대에 걸친 빨랫줄에 빨래를 널면 뼈딕뼈딕 동태가 됐다.

작은딸은 기억에도 없는 옛날얘기를 들으며 눈물이 그렇그렁해졌다.

손녀가 잠에서 깨어나 엇치락뒤치락 떼를 쓰니 작은딸이 손녀에게 말했다.

“수아야, 엄마도 엄마가 있다! 너 울고 떼쓰면 엄마의 엄마

한테 이를 거야!”

작은딸이 엄마가 되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손녀에게 엄마의 엄마를 사랑해서 이 할미가 으쓱해졌다.

애 키우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 딸과 집밥 얻어먹기 힘겨운 사위를 위해 절인 갓 볶음, 눈개승마 나물, 청국장을 끓여 저녁상을 차리니 사위가 밥 두 공기를 똑딱 먹고 설거지를 한다.

사위는 퇴근하면 집으로 출근해서 쓰레기 버리기, 집 안 청소, 빨래 세탁기 돌리기 등을 도맡아서 한다. 집에서 종일 애를 돌보는 딸도 힘들다 싶었는데 사위 몫도 장난이 아니다. 이러니 맛별이하면서 애를 낳아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다. 작은딸도 복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할미 놀이 6일째인데 손녀가 예쁘기는 하지만 8kg 가까운 손녀를 안아주다 보니 어깨가 결리고 허리, 다리뼈도 아프다.

작은딸 조직검사 결과가 걱정된다. 손녀딸이 예뻐도 내 딸이 먼저다. 엄마의 엄마인 이 할미는 내 딸이 더 예쁘고 내 딸이 더 안쓰럽다.

Letter 11

청주혜원학교 선생님들께

윤현정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며 칠 전, 아이의 마지막 하굣길을 함께한 후 울렁이는 마음을 다독이며 글을 적어봅니다.

지난주 아이가 고등부 졸업식을 거쳐 겨울방학 방과후 수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구나 싶습니다.

아이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 다녔습니다. 아이는 발달장애인으로 스무 해를 고되게 살아왔어요. 그런 아이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었던 청주혜원학교. 그곳은 등교할 때도 하교할 때도 모든 선생님이 마중을 나와 손을 흔들며 아이를 반겨줬던 따뜻한 배움터였습니다.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도합 12년 동안 한 정문을 넘나들며 학교에 다녔네요.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 정문이 그 마을로 가는 길목이었음을 다시금 느낍니다.

청주혜원학교에서는 학습적인 교육은 물론 신변 처리 도움, 다양한 프로그램, 외부 활동을 통한 사회 적응 체험까지 선생님들의 세심한 손길로 값진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교 공지용 앱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우리 반 갤러리를 클릭해 사진을 한 장씩 다시 보고 빠짐없이 저장했어요. 가방 만들기 하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진로 체험에 나간 모습, 생일 파티하는 모습, 놀이동산에서 범퍼카 타는 모습까지 햇살같이 웃는 아이들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나면서도 벌써 그립네요.

카메라 너머의 선생님의 노고도 느껴지고요. 바쁜 일과 중에 이렇게나 많은 사진을 남기느라 얼마나 수고스러우셨을까요.

많은 사진 속, 작년 5월에 올라온 활동사진을 클릭하니 지난 어버이날이 기억납니다. 우리 아이는 언어 전달이 미숙하고 손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는 걸 어려워해요. 사실 어버이날이 어떤 날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스무 해를 키우면서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거나 직접 카네이션을 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가 가슴에 꽃을 다는 날을 어버이날이라고 한다면 저와는 상관없는 날처럼 느껴졌지요. 가슴 한켠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매년 어버이날 무렵이면 선생님이 만드시고 아이가 만든 축하하는 카네이션을 책가방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아, 나도 어버이구나...’ 싶고 그 카네이션이 애뜻해 거실 벽면에 며칠을 전시해 놓곤 했지요.

작년 어버이날에는 아이 치료실 일정으로 수업을 조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로 가방에 카네이션이 없더라고요. ‘이젠 고3이라 카네이션 만들기 수업은 안 하나보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 선생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당당이가 만든 카네이션을 못 보내드렸네요.ㅠㅠ 내일 넣어드릴게요. 사진 먼저 보내드려요.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문자 아래로는 활짝 웃으며 카네이션 액자를 들고 있는 아이의 사진과 선생님이 쓰셨겠지만 아이 이름으로 쓴 감사 편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아이 치료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흐르더군요. 내일 하교할 때 보내셔도 됐을 텐데 제가 혹시 기대하고 실망했을까 봐 일부러 메시지에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청주혜원학교에서는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사소하지만 다정하게 따뜻함을 주는 순간들이요. 모든 선생님이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새 학기마다 적응이 필요한 아이인데도 등교할 때 엄마 손을 뿌리치고 교실로 뛰어가게 만드는 선생님들이셨지요.

작년에는 아이가 극희귀 난치 판정을 받고 제가 이곳저곳 아프기도 하면서 힘이 세진 아이를 케어하기가 유독 힘에 부쳤습니다. 졸업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런 시기에도 당분간은 아이를 맘 편히 믿고 보낼 수 있는 울타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했는지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 힘드셨을 텐데 언제나 환하게 반겨 주시고 세심하게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도 성장하고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회복도 많이 되었고요.

우리 담임선생님, 실무원 선생님, 부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 어른스럽게 많이 배려해 준 우리 친구들. 교장, 교감 선생님, 진로 부장님,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등하교 시 마을 입구를 지켜주시는 선생님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선생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12년을 이 마을에서 잘 지내다 갑니다. 꼬꼬마였던 아이가 어느덧 성인이 되어 교문 밖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게 됐어요.

새로운 세상은 아직 낯설고 무섭지만 그동안 많은 선생님의 사랑과 응원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잘 해내겠지요. 아이를 만난 게 행운이었다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

이혜원 | 김포시 김포한강 11호 38

제 인생을 확 바꿔놓은 49년전 제 어릴시절의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때 강려는 아주 존이었습니다.

1학년이 된지 3개월쯤후 한 남자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죠.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였다. 많은 여학생들이 좋아했죠. 나는 그남학생 동네에 여자아이랑 친하게 지내며 그 아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용기를 내서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써서 그 여자아이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다음날 그 여자아이는 답장이라며 편지를 주었다. 받아보니 내가 보낸 편지였다.

내가 보낸 편지 뒤에 낙서하듯 써 내려간 글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버렸지만," 라는 글이었다. 한참을 생각했다. 괜참을 아이인줄 알았는데 인성이 형편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나에게 질문을 하였다. 그 아이를 왜 좋아 했는지를 생각했다.

내가 그 아이를 좋아 한 것은 그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내가 피아노를 배워서 그 아이보다 잘 치고야 말겠다고 결심을 하였다. 그 시절 우리집의 형편은 피아노는 사치였다.

내가 중이이고 위로 오빠가 나 그리고 언니,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나는 아버지께 엄청나게 야만맞은거로 생각된다. 나는 포기 할 수가 없었다.

어린나는 고민 끝에 한약방을 찾아 갔다.

나는 사장님께 "아저씨 저 돈 벌고 싶어요 들에서 나는 약초를 캐다드릴게 돈 주실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다 사장님께서 어이없어 하시면서 한 말씀 하셨다. "밭에 다니다 보면 무릇이 있는데 그것을 캐오면 돈 줄게" 라고 하셨다.

나는 그 지역에 유일하게 한곳 있는 피아노 학원을 찾아가 선생님께 학원비가 얼마냐고 물으니 1달에 만오천원이라고 한다. 들에 다니면서 그것을 캐기 시작 하였다. 3주정도 캐다보니 부피가 어느 정도는 될 듯하여 한의원에 가져가서 말씀드렸다.

"아저씨 저 이거 캐왔어요 만오천원만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 너는 이돈으로 뭐하려고 하니 하고 불의였다. 어쨌면 그때 나는 돈 몸이 흠투성이

였을 것 같다. "저 피아노 배우려구요. 라고 말씀드리니 이번에는 그만원 줄께 책도 사야 되잖아 라고 말씀 하시더니 그만원을 주셔서 바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여 배우기 시작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들에 다니며 그 무렵이라는 걸 늦게까지 깨러 다니고 늦게 피아노 학원에 갔다 집에 가니 부모님께서 왜이리 늦게 오냐고 야단치셔서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늦는다고 늘 거짓말을 하였다. 늦은 가을까지는 이런일이 가능하였지만 겨울이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양장점을 찾아가 시다일을 하기로 하고 한달에 만원정원적을 받았다.

열마쯤 지났을까 피아노 교재가 바뀌니 학원비가 인상이 되었다. 나는 한의원에 가서 "아저씨 이번부터 18,000 원 주시면 안되요?" 라고 물으니 알았다 하시며 그 액수를 주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값어치도 못되게 컸을 거 같다.

고등학교 진학을 부모님께서 상업계를 원하셨다. 그러나 나는 인문계 원서를 쓰고 음대에 가야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인문계에 가니 그 아이도 같은 반이 돼 있었다. 같은반이지만 3년 내 한마디도 안했다. 난 도저히 단 하나 그 아이보다 피아노 잘 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계속하여 한약제를 캐기 위해 봄, 여름, 가을 들러
 다녀야 했고, 겨울엔 양장점에서 시다 역활을
 해야만 했다. 음대를 가기 위해 틈나는 대로 학교 음악
 선생님께 찾아가 화성학을 배워야 했고 선생님께서는
 나의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가운데 음악 이론을 잘
 가르쳐 주셨다. 고3때 음대를 지망하여 원서를 썼지만
 실력이 부족하여 떨어졌다. 나는 재수하여 음대에
 입학했고 한석림을 찾아가 말씀드리니 "너 같은 아이
 처음 봤다" 라고 말씀하시고 축하한다며 50만원을
 주셨다. 인천에서 살고 있던 어느날 강화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나는 피아노 잘 쳤던 그 아이를 만났다.
 나는 당당하게 그 아이에게 나 니턱분에 음대
 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니 그 아이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중1때 편지사건을 말하니
 "나는 그런 편지 받은 적 없었어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나 무척 좋아 했었어.라고 말한다. 결국 내가 보낸
 편지는 그 여자아이 손에서 나한테로 왔다는 것을
 알았다. 어찌 됐든 나는 그 일로 음대를 졸업하여
 피아노 학원을 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
 나의 부모님께서도 내가 피아노 학원 오든 할때 내가
 음대를 졸업 했구나 라고 알게 되셨다.



여성시대 사진방



[2016] 지금 빙어낚시 하고 있어요. 여기 춘천은 영하 12도입니다. 많이 춥지만 재미있어요.



[5393] 여긴 포항 구룡포 과메기 덕장입니다.



[2625] 제가 사는 주변엔 없어서 지난 일요일 서울 가서 구입했습니다.



[1441] 반려 라디오입니다.



[3254] 라디오로 하루를 시작하는 제주 당당이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오늘도 두 분의 방송으로 파이팅 해봅니다.



[2659] 날씨가 왜 이리 안 좋는지 인근 작업 하는 게 힘드네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전남의 여성시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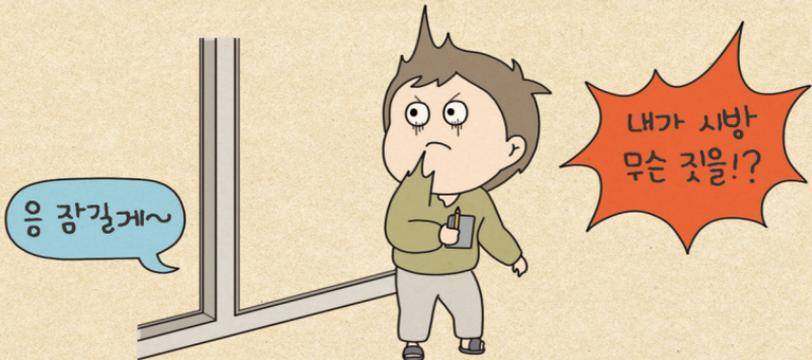
당당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때는 지난 일요일 오후 두 시경
겨우내 파손된 옥상 난간을 보수하기 위해
줄자와 수첩, 그리고 연필 한 자루를 챙겨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집 옥상 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방범용 이중 샷시라 한 번 닫히면
밖에서는 절대 열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늘 주의를 기울였지만



그날은 무심결에 문을 짹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은 방 안에서 충전 중이었고
저는 얇은 옷차림으로 영하의 겨울바람을
고스란히 맞게 되었습니다.

이건 맥가이버
할아버지가 와도
속절없다.



제 손에는 줄자와 수첩뿐

날이 추워 거리엔 행인도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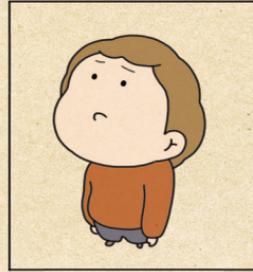
한참을 추위에 떨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분은 저의 외침을 외면하셨고

두 번째 분은 다행히 멈춰 서주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현관 비번을 적어 아래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그분은 아래층 현관문만
열어주고는 가버리셨습니다.



목상에서
얼어죽을 순 없어...

그렇게 두 시간이 흘렀을까요.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세 번째 행인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119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119신고 좀 해주세요.
옥상에 갇혔어요.



아이쿠 저런
잠시만 계세요.



감사하게도 119대원분들이 도착해 제가 구조될 때까지
차가운 건물을 앞을 지키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해 문을 열어주신 119대원님들
그리고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진
이름 모를 저의 영웅 덕분에
저는 차가운 옥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던 그날
이웃의 온기로 살아있음을 느꼈던
저의 웃픈 옥상 탈출기입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원스톱 패키지 전문기업



IBK기업은행 도당동지점 거래고객

대산산업 조종호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대산산업은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서 부천 원미구로 사옥을 이전하며 포장재 제조와 화장품 케이스 및 명판 생산을 위한 설비를 증축하고 기업부설 디자인연구소를 확대개편하여 고객사의 니즈에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는 원스톱 풀 서비스 생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대산산업의 성장은 현재진행형이다.

대산산업은 화장품 및 생활용품 포장재 제조업체로 디자인-설계-제조 등 원스톱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타 회사와 달리 외주 없이 개발부터 제조까지 전 공정을 자체 생산하여 고객의 니즈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산산업은 상품 패키지 외 화

장품 케이스 및 파운데이션용 명판을 주력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디자인연구소를 활용하여 신사업으로 굿즈 및 키링 등을 개발·제조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포장재가 아닌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차별화된 소재와 디자인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대산산업은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중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김포에 원단 제조사를 설립한 시점이었다. 지속적인 영업으로 유명 브랜드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지만 물량이 예상보다 많아 원단 공급의 어려움과 설비 부족으로 납기일을 맞추기가 여의치 않았다. 이런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원단을 직접 제조해야겠다는 생각에 과감한 투자를 감행하여 김포에 원단 제조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양질

의 원단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명 브랜드의 발주 물량을 대량으로 수주하였고 적시 납품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회사 성장의 큰 계기가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큰 위기도 있었다. 금융 위기 당시 고객사의 부도와 미수금 등으로 회사 자금이 돌지 않아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했고 공장이 멈출 위기까지 겪었다. 당시 주변에서 급전을 유통



하여 원자재를 수급받아 공장을 조금씩 재가동하였고 협력사 결제를 최우선시하며 신뢰를 쌓아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최근에는 환경 이슈를 이유로 상품 패키지 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상품 포장재 외에도 화장품 용기 명판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

급여와 협력사 매입 대금은 적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시에 납품하는 것을 제일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연구소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독특한 소재를 개발하여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친환경 소재, 원단 절감 구조, 차별화된 인쇄 기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IBK기업은행 도당동지점 최용



수 지점장은 “대산산업은 국내 포
장산업 기술 기반 성장을 실현해
온 기업으로 친환경·저탄소 포장
구조 개발과 독자특허(Magic Cell
Printing) 보유 등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IBK기업은행은 대산산업의 금융
파트너 역할을 적극 수행하며 단
순히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력과 성장성을 평가해 중장기 협
력 구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응
원했다.



IBK기업은행 도당동지점 최용수 지점장(왼쪽)과 대산산업 조증호 대표

❗ 대산산업 조증호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위기의 상황에서 과감하게 결단하라.
2. 고객과 직원, 협력사와 신뢰를 쌓아라.
3.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라.

대산산업

대 표 조증호
전 화 032-674-0656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정주로 60
홈페이지 <https://daesan21.com>



클래스가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



IBK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 거래고객

클래스병원 임석민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클래스병원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진료 문화를 지향한다. 진료 속도보다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고 형식적인 진료보다는 공감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진단과 수술뿐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하여 일상에 복귀할 때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클래스병원은 관절·척추 전문 병원으로 관절센터, 척추센터, 소아정형센터, 스포츠메디컬센터 및 뇌신경센터, 내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클래스병원은 주변에 공단이 많아 산재로 인한 환자 및 근골격 환자가 많다. 특히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있어 지역 내 관절·척추 병원에 대한 니즈가 높다. 이러한 지

역 특성상 관절·척추 병원이 주변에 다수 포진되어 있었지만 임석민 대표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생각에 지난 2023년 지금의 부지에 병원을 개원하였다.

클래스병원은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차별점을 갖추고 있다. 첫째,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



비하여 정확하게 진단한다. 기존 MRI보다 더 향상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3.0T MRI, 높은 정밀도의 FHD 고화질 내시경 기기, 고화질 디지털 영상의 C-ARM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수술을 진행한다. 둘째, 넓은 면적의 깨끗하고 청결한 시설을 통해 입원 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 및 세브란스병원 출신의 외래교수 및 전문의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환자들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때, 클래스병원 이라서 안심이 됐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치료를 마친 환자분들이 다시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해 주실 때 병원이 단순한 의료 공간을 넘어 신뢰의 공간이 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병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 습니다.”

병원 운영을 시작하면서 어려움도 있었다. 병원 개원 전에는 의사로서의 직무만 수행하다가 직원 200명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



는 일은 임석민 대표에게 많은 무게감을 주었다. 또한 환경 변화나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많은 고민이 뒤따랐다. 그럴 때마다 환자와 직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했다.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에만 치중하거나 경영에만 올인하는 병원도 많지만 결국 병

원은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신뢰를 주고 직원에게는 성장과 존중을 주는 병원이 되어야 결국 지속 가능한 의료기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규모를 확장하는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 운영선 지점장은 “클래스병원은 ‘개원 초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의 협약으로 출시된 의료 사업자 전용 상품 메디칼네트워크론을 통해 적기에 대출을 지원하며 인연을 맺었다”며 “IBK기업은행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병원은 IBK기업은행 고객기반 확대에 기여하며 서로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IBK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 운영선 지점장(왼쪽)과 클래스병원 임석민 대표

❶ 클래스병원 임석민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환자의 치료와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라.
2.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첨단 장비에 투자하라.
3.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라.

클래스병원

대 표 임석민

전 화 031-401-1111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길 11, SR노빌리안 3-8층

홈페이지 <https://class2023.co.kr>



여자는 모른다

81 최고의 궁상

87 작심삼일은 없다

사랑 사랑 사랑

91 또 약속합니다

95 토끼와 거북이

102 햄스터 사랑꾼



일러스트 | 조신애

여자는 모른다

최고의 공상

애청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바로 '가난'입니다. 물론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유독 저는 조금 더 예민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건축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회사는 부도를 맞았고 90년대 당시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면서 아버지 회사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엄마는 기업 사장님 자택에서 가정부 일을 하셨고 몸 쓰는 일을 해보신 적이 없었던 아버지는 밤마다 고통을 소주로 해소하시곤 했습니다.

부도 이후 옷은 늘 사촌 형이 입던 걸 물려받았는데 저보다 덩치가 컸던 사촌 형의 옷은 늘 클 수밖에 없었고 저는 항상 바지 밑단과 상의 팔 부분을 접고 다녀야만 했어요.

“엄마, 나 옷 새로 사줘. 수선이라도 해줘. 옷이 너무 커서
넙마 같대. 사람들이.”

“미안해. 근데 이 옷을 3년은 더 입어야 하니까 지금 줄이
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들 중학교 갈 때
는 새 옷 입고 갈 수 있게 노력할게.”

엄마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엄마보다 늘 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친구들은 멋있게 차려입고 꽃다
발을 몇 개씩 품에 안고 부모님과 사진을 찍기에 바빴습니다.
엄마도 모처럼 가게 일을 쉬고 저에게 와주셨죠. 당연히 꽃도
사 오셨는데 약간의 안개꽃과 장미꽃 한 송이. 엄마가 멀리서
들고 오는 그 꽃다발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꽃다발이야? 창피해 죽겠네! 차라
리 빈손으로 오지 그랬어? 이게 뭐야? 이게!”

“엄마가 꽃집에 갔는데 꽃다발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그
래도 우리 아들 졸업식이니까 꽃은 있어야지.”

미안해하는 엄마가 보이지 않았던 철부지 초등학생.

“저리 치워. 그냥 빨리 집에나 가!”

그런 저에게 엄마는 주머니에서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꺼
내셨습니다.

“아들~ 그러지 말고 여기에 서 봐. 엄마가 학교 잘 보이게
사진 한 장 멋있게 찍어줄게.”

“싫어! 일회용 카메라는 찍어봤자 잘 나오지도 않아. 그냥
집에 가자고!”

“그러면 잠깐만 저기 재현 엄마, 우리가 카메라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좀 찍어주면 안 될까요?”

“그럼요. 우리 사진 인화할 때 한 장씩 더 인화해서 주세요.”

“고마워요. 좋은 카메라로 찍으니까 우리 아들 인물도 훨씬 하게 나오겠네. 인화비용은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하는 김에 한 장씩 더 하는 게 뭐 어렵다고.”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그때 저는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고 엄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는데도 핫김에 집으로 혼자 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던 자전거도 저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고가의 물건. 친구들이 일명 ‘방구차’라 불리던 흰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소독차 뒤를 자전거로 썩썩 따라다닐 때도 저는 두 발로 뛰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달리는 친구들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놓고 있던 모습을 하필 엄마가 보셨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미안해.”

달려와 저를 끌어안고 제 앞에서 오열하는 엄마를 보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화가 나지 않고 그동안 엄마에게 모진 소리만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께 다시는 모진 소리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 아내가 제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이겁니다.



“오빠, 왜 이렇게 공상을 떨어?”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오빠, 신발 좀 봐. 밀창이 다 닳았어.”

“아직 신을만한데 뭐 하러? 그리고 요즘은 밀창도 다 수선해 주더라. 더 닳으면 수선 맡길게.”

“오빠, 다음 주면 내 동생 결혼식인데 입을 옷은 있어?”

“그냥 있는 옷 입고 가면 되지.”

“우리 동생 결혼식이야. 당신이 형부라고! 명색이 형부가 처제 결혼식에 후줄근하게 입고 가겠다고? 오빠 대체 마지막으로 옷 산 게 언제야?”

“내 옷이 뭐가 어때서? 그리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돈을 막 쓰면 절대 돈 못 모아. 나중에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하고 결혼할 때 집 사는 데 조금이라도 보태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야지.”

맞습니다. 저는 잔돌이예요. 근데 그런 제가 유일하게 돈을 아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빠, 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130만 원짜리 휴대폰 바꿔준다고 했어?”

“응~ 그게 요즘 유행이래. 다른 애들도 다 쓴다는데 그럼 우리 아들도 있어야지.”

“유행이라고 다 사줘? 저렇게 비싼 걸? 애 버릇 나빠진단니까!”

“뭘 그 정도 갖고 버릇이 나빠져. 그리고 휴대폰은 한 번 사용하면 오래 쓰잖아. 그러니까 좋은 걸로 사야지.”

이상하게 아들에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난해서 느꼈었던 비참함을 우리 아들에게까지 느끼게 하고 싶진 않아서 우리 아들은 빔을 내서라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겨울 패딩을 사러 갔을 때도 원래는 20만 원 정도 선에서 사려했는데 아들이 고가의 브랜드 매장에서 “아빠! 나가~” 하는데 “이쁘네. 근데 얼마야. 가격 봐봐. 헉! 68만 원? 야, 내려놔! 탄 데 가자.” 아내는 당연히 아들을 데리고 다른 매장으로 가려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저 패딩이 갖고 싶어? 그럼 입어봐. 사이즈가

뭐가 맞으려나?”

“오빠 진짜 미쳤어? 무슨 애들 옷에 68만 원을 써. 그럴 돈 있으면 오빠 옷이나 하나 사. 이 거지 같은 옷 좀 제발 버리고!”

“멀쩡한 옷을 두고 왜 쓸데없이 사. 그리고 요즘은 애들 옷이 더 비싸.”

“아들이 지금 한 해가 다르게 크는데 저런 비싼 옷 사줘도 어차피 한철밖에 못 입어.”

“그럼 반 치수만 더 크게 사면 되지. 나중에 못 입게 되면 중고로 팔아도 되고.”

“그래! 오빠 옷도 내가 중고로 팔아줄 테니까 제발 오빠 것부터 좀 사라고! 만날 똑같은 옷에 똑같은 신발! 여기 구멍난 거 봐. 안 추워? 구멍 송송~ 여기도, 여기도!”

맞아요. 저는 공상을 떨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공상떨며 살아서 나중에 우리 아내와 아들이 남부럽지 않게 누리며 살 수 있다면 이까짓 공상 정도는 더 떨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우리 지금 좀 공상떨며 살고 나이 들어 여유롭게 살자”라는 말을 차마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게 아내를 더 화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요 우리 가족 확실하게 책임질 자신 있습니다. 저 축도 하고 노후 준비도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와 아들에게는 가난의 비참함을 모르게 해야 한다! 이 절실한 목표가 있는 이상 저는 앞으로 더! 기꺼이! 철저히! 저에게만은 공상을 떨며 살 것입니다.

여자는 모른다

작심삼일은 없다

애청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57년을 살아오면서 술한 맹세와 선언을 남발하였으나 대부분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내한테 빠져서 “니가 해주는 밥은 이제 안 물끼다!” 호언장담하고선 이틀을 못 버티고 “여보, 식은 밥 남은 거 좀 없나?” 투항하고, 숙취로 골골할 땐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개아들이다!” 후회했다가 저녁 무렵 살만해졌다 싶으면 “나는 그냥 개 하련다~ 멍멍~” 술을 찾는 일이 다반사였죠. 금연 결심도 뭐 수없이 했습니다. 정월 초하루마다 어김없이 금연을 선언했지만 늘 그랬듯 작심삼일도 넘기지 못하고 숨어서 몰래 피우다 아내에게 들키고 했습니다.

아내도 지쳤는지 이젠 화도 안 내고 잔소리도 안 하고 특유의 편잔이나 빈정거림도 없이 그냥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그

러데요.

“내가 30년을 뒀고 살았어도 저 인간, 저거, 사람 못 만들겠다. 진짜~”

30년 전 그때는 아내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담배를 찾던 제게 새색시였던 아내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선택을 해라!”

“갑자기 뭘? 내용을 말해야 알 거 아이가?”

“내하고 담배, 둘 중 하나를 택하란 말이다. 내가 담배 냄새 싫어하는 거 알면서 보란 듯이 피우나? 배신감 들어서 더는 못 살겠으니까 선택하라꼬!”

“참내, 연애할 땐 니가 뭐라 했노? ‘자기는 담배 피우는 모습도 지성과 야성미를 겸비한 순진남 같아예~’ 안 했나? 내야말로 진짜 배신감 든다!”

“문디야~ 그땐 콩깍지가 씌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가. 우쭐든 간에 퍼뜩 선택해라. 내 그놈의 담배 때문에 맨날 성내고 괴로워하는 것도 자존심 상해서 더는 마 못 하겠다. 이 참에 확 끊든지, 내하고 헤어지든지 하나만 골라라! 퍼뜩! 뭐하고 있노. 선택해라 안 카나.”

아내의 성화에 저는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야, 막차 떨어질 시간 다 돼가는데 뭐하고 있노?”

“갑자기 그기 뭘 소린데?”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매? 너거 친정으로 갈라 카면 막차 시간 다 돼가잖아. 빨리 서둘지 않고 뭐 하냐고?”

그렇게 농담을 가장한 필사즉생 필생즉사! 결사의 각오로 지켜낸 것이 흡연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폐가 아주 안 좋습니다. 고지혈증에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며칠을 방황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울산에 있는 4박 5일 금연 캠프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선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주 빽빽하게 짜여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요가 시간.

“자, 매트 위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두 손 가슴 앞에 합장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수련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떼~ 자, 이제 고양이 자세, 매트 위로 기어가듯 엎드려 주세요. 손목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아래 두시고 숨 마시면서 골반부터 허리 등을 말아 올려 머리를 가슴속으로 깊이 넣고 배꼽 바라봅니다.”

처음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평생 아내한테 용돈 받으려고 굶신거린 거 외엔 허리를 수그러본 적 없는 저라서 온몸이 뻣뻣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숨 내쉬면서 엉덩이, 허리 등을 펴고 가슴을 앞으로 쪽 펴면서 얼굴 들고 시선 정면~”

강사님을 따라서 등을 굽혔다가 폈다가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다 끙끙대며 따라 하다 보니까 이마에 땀도 맺히고 몸도



뜨거워지고 근육도 좀 풀린다 싶더군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뿡~ 처음엔 민망했습니다. 근데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원래 쉽잖아요. 한번 열린 ‘항문’ 게이트에서는 실 새 없이 가스가 새어 나왔고 그 소리는 마치 경쾌한 트로트 같았습니다. 뿡뿡뿡~ 뿡뿡로봉~ 리듬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 안의 독소가 다 사라지고 굳었던 몸이 펴지면서 제 꼬인 인생도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연 캠프 졸업 후 저는 담배뿐 아니라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부터 찾았는데 이제는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운동화를 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걷기 운동을 했더니 물렁물렁하던 다리에 탄탄한 근육이 생기고 칙칙하던 얼굴 혈색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습관의 변화로 건강을 되찾고 있는 저, 참 좋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또 약속합니다

애청자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아내와 단둘이 처가댁으로 갑니다. 장인어른 건강이 좋지 않아 문안도 하고 바람도 쉴 겸 운전하는 차창 밖으로 강원도의 높은 산 능선들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냥~ 당신 달라고 처음 인사 가던 날...”

“그게 벌써 언제예요? 그때 당신, 진짜 엄청 긴장해 보였었는데.”

“그랬나? 하긴 그때 내 나이가 고작 스물넷이었으니까.”

30여 년 전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나는 결혼을 약속한 여인의 손을 잡고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청량리역에서 태백역까지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가는 긴 시간 동안 나는 많

은 생각을 했습니다.

‘볼품없는 외모, 부모님의 이혼, 사춘기 시절 방향으로 좋지 않은 과거, 직장도 변변치 않고 단돈 10원도 가진 게 없는데 과연 귀하게 키우신 딸을 허락하실까?’

주위 사람들도 다 말렸어요. 심지어 친한 친구마저 “제정신이면 허락하겠나? 너희 집안 형편 뻔히 아는데. 결혼은 현실이야 인마! 가서 상처받지 말고 관둬.”

“하아~ 그래도 어떡하냐. 내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는데.”

태백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머릿속은 빙빙 돌고 가슴은 콩닥거리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방에 들어서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으셨죠. 저는 대뜸 큰절부터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제게 그녀의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편히 앉게.”

무릎을 꿇은 자세를 고쳐 앉는 대신 저는 누가 묻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좋은 배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호강은 못 시켜도 평생 마음고생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머뭇거리던 장인어른이 뒤에 계신 장모님을 보며 딱 한 마디 하셨습니다.

“여기 술상 줘.”

아무런 말씀 없이 권하시는 소주잔. 체질상 술을 잘 못하지

만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소주 서너 병을 입가심으로 드실 정도의 주당이셨던 장인어른의 주량에 저는 금방 취기를 느꼈지만 ‘만약 이 술을 못 건디면 나는 오늘 끝이다!’ 죽을 각오로 주시는 대로 다 들이켰습니다. 몇 시간의 긴 술자리가 지나도록 어른들은 별다른 말이 없으셨습니다. 제 집안이 어떤지, 대학은 어디를 나왔는지, 직장은 어디를 다니고, 돈은 좀 모아 놓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술자리의 끝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처가 사랑방에서 하루 밤 기절하듯 잠을 얻어 자고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채 못 되어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상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열여덟 평 좁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아내의 가난한 시집살이, 결혼하고 임신을 한 아내는 얼마 후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는 가로 2미터, 세로 3미터가 채 안 되는 단칸방이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실직하고 쌀이 떨어져 빛을 내어 살림 하면서도 아내는 단 한 번도 내게 돈을 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이 안 풀려 늦은 밤 제가 혼자 술잔을 비우고 있으면 자다 말고 일어나 빈속에 술 먹지 말라며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사람.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늘 남편이 첫 번째였던 아내였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

“당신 등 굽은 거 봐. 여보, 힘내요. 난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마.”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늘 못한 남편이 첫 번째였던 사람.

돌아보니 지난 30년은 그 옛날 무릎 꿇고 장인어른 앞에서 했던 그 약속 “마음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니 내가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길이 어지러울 때 약속은 등대가 되어주었고, 동화 속 아름다운 궁전이 아니었지만 비가 새는 천장과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이라도 그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눕고 함께 아침을 맞이하려고 거센 비바람도 모진 시련도 버티고 견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영화도 필요치 않다는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을 주고 싶어서 나는 또 약속합니다. 늘 함께 있어도 늘 보고 싶은 사랑하는 아내여, 이제는 내가 당신을 향하여 빛나는 별이 될게요. 밤하늘에서 흔들리며 빛나는 시리우스처럼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고 당신을 향해 빛나며 당신의 밤길을 비추는 별이 되겠습니다.

“여보~ 다 왔다. 아빠, 저기 나와 계시네.”

“그러게.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오냐, 왔는가~ 어여 들어오게~”

가진 것 하나 없던 20대 청년을 아무 조건 없이 아들로 품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 30년 전 장인어른이 건네주신 말 없는 술잔이 철없던 저를 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

토끼와 거북이

정영주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저는 친정엄마의 급한 성격을 닮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 집에서 살 동안 엄마는 아침마다 제 방문을 벌컥벌컥 누군가한테 쫓기듯이 열고 들어오셨어요.

“영주야! 정영주~ 아홉 시 다 돼가는데 안 일어나고 뭐 하니?”

“뭐? 아홉 시? 아~ 알람이 왜 안 울렸지? 이럼 지각인데!”

“머리 감다가 또 늦지 말고 세수랑 양치만 하고 얼른 가.”

화장실로 후다닥 들어가 치약을 짜려는데 그제야 울리는 휴대폰 알람 소리에 화면을 확인해 보니 지금 시간이 ‘오전 8시 10분’인 거예요.

“아 엄마아~ 이제 여덟 시잖아. 왜 그래 진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아침 먹으면 금방 아홉인데 뭘. 뭐 해 마저 안 씻고?”

엄마랑 살면서 정말 많이 싸웠는데 원래 욱하면서 닳는 거라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엄마의 급한 성격을 그대로 빼다 박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느긋한 성격에 약속 시간에 30분씩 늦는 건 기본. 오죽하면 제가 9시에 영화가 시작한다면 일부러 8시에 만나자고 했다니까요.

남편을 만나면서 저 여유로운 성격이 대체 어디서 온 건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님을 닮은 거더라고요.

연애하던 시절 처음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뵈러 간 날이었습시다. 혹시 부담되실까 봐 일부러 밥때를 넘겨서 갔는데 어머님이 그래도 맛있는 걸 먹이고 싶다면서 상을 차려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실에 있으면 두 분이 불편해하실까 봐 저는 남편이랑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참 동안 기다려도 밥 먹자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오빠, 어머님 밥 차리고 계신 거 맞지?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지?”

“어어~ 우리 엄마가 손이 좀 느려서 그래. 좀만 더 기다려 봐.”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지금 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오빠, 부엌에 가서 어머니 요리하고 계시나 좀 보고 와봐 봐.”

“에이~ 한 시간이면 얼마 안 됐구먼. 영주 너는 가만 보면 성격이 너무 급하다니까.”

그 순간 어머니가 저희 대화를 듣고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밥 다 됐으니 이만 나오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하셨나 보다. 삼계탕이라도 하셨나?’ 싶었는데 상차림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흰 쌀밥에 김치, 살짝 구운 김에다가 달걀프라이, 된장찌개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찬 몇 가지가 전부였거든요.

저희 집 같았으면 이미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마쳤을 시간인데. 남편 성격이 다 어머니를 닮은 거구나 싶어 웃겼던 거죠.

“영주야~ 너는 밥을 원래 그렇게 빨리 먹니? 그러다 체하겠어. 천천히 물도 좀 마시고.”

“감사합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어머니~”

“엄마, 영주가 배고팠나 봐요. 아까부터 계속 밥 언제 다 되냐고 나보고 부엌 좀 가보라는데. 아야!”

느긋한 것도 속 터지는데 눈치까지 없는 남편 허벅지를 꼭 꼬집어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갈 길이 멀어서 한숨은 좀 나오지만 우리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냈듯이 결혼하면 제가 조금씩 남편을 가르치면서 잘살아 보겠다고요.

“어머 왜 그래? 밥에 돌 씹혔니?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다가 혀를 씹었나 봐요. 그치, 형우 씨?”

“어, 맞아요. 돌 아니고 혀 씹은 거예요. 엄마 밥이 맛있네. 맛있어!”

그렇게 느긋한 남자를 요리조리 구슬리며 살아 보겠다 맘 먹었지만 제 남편은 느긋하다 못해 느려도 너무 느려터졌습니다.

작년 가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성격 급한 저는 아침 일찍부터 남편을 깨워냈죠.

“오빠, 부모님께 열 시까지 가겠다고 했거든? 그니까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

“하암~ 지금 몇 신데?”

“여덟 시~ 아니다, 여덟 시 팔 분!”

“아직 멀었구먼.”

“아니~ 씻고 밥 먹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여유 있진 않지. 빨리 좀 일어나!”

“아이~ 좀만 더 자고. 30분만 이따가. 드르렁 킁~ 드르렁.”

그날은 결국 늦장을 부린 남편 때문에 부모님 댁에 한참 늦게 도착했고 뒤에 일정이 다 꼬이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다 괜찮다고 하시는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네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왜요 어머니?”

“북한은 모든 게 속도전이라는데 자네처럼 느려서 어디 살아남겠는가?”

“어머님도 아시는군요?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무조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네. 잘 생각했어!”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서도 포기한 남편의 성격.

같이 살면서 남편과 결혼한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이에 시간 계산 하나 못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고 이 남자랑 살면서 저만 성격이 조급해지는 게 억울하고 부담되고 정말 싫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남편과 한바탕 실랑이를 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근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내일까지 반납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에는 애들이랑 다 같이 어디 다녀오기로 했으니까 오늘 여유 있을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반납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꼭 오늘 가야 되나? 내일 집에 오는 길에 들르면 되잖아.”

“아유~ 내일 일정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오늘 여유 있을 때 갔다 오지? 매번 늦장 부리고 미루고. 당신 왜 그래?”

“집에서 좀 쉬고 싶으니까 그러지. 정 급하면 당신이 오늘 갔다 오든가.”

“내가 빌렸어? 당신이 빌렸잖아. 맨날 미뤘다가 결국 일은 내가 다 하고 당신 따라다니면서 뒤처리한 게 한둘이야?”

“누가 뒤처리 해 달래? 그러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사람을 왜 이렇게 들들 볶아?”

“됐네요. 책이나 내놔. 내가 갔다 오려니까.”

집에 있다가는 더 크게 싸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도서관에 갔다가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서 가까운 친정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시장에 가셨고 아버지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대뜸 말

씀하십니다.

“네 남편은 어찌고 혼자 오냐? 형우는? 내 ‘은인’ 형우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인이라뇨?”

“형우가 너한테 얘기 안 했냐? 애가 일이 바빠서 얘기하는 걸 깜박했나 보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빙빙 도는 게 이게 기분 나쁘게 그러더라. 심하진 않았는데 네 엄마가 애들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 집에 있는 두통약이나 먹으라는 거야.”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라니까요. 혼자 참으시지 말고요”

“근데 마침 엇그제 사위한테 안부 전화가 온 거 있지? 뭐 하시냐고 묻길래 약 먹었다고 하니깐 바로 집에 온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요? 회사에 있었을 텐데?”

“그래~ 안 그래도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회사에 말해놓겠다면서 내과에 데리고 가더라고. 거기서 별걸 다 했어. 동맥경화 검사랑 뭐 심전도 그것도 잤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래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도 170이 넘어가서 늦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올 뻔했다네. 영주야~ 나는 개가 행동이 느려서 어떻게 살려나 걱정했는데 안 그래도 되겠어. 두통약 먹었다는 말 듣고 회사도 내팽개치고 달려오는

사위가 또 어딴냐! 병원에서 검사 예약하는데 애가 아주 날 아다니더라고.”

항상 철이 없다, 느리다,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잔소리만 해댔는데 남편의 빠른 선택 덕분에 아버지가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실랑이를 벌이고 온 게 생각나 남편에게 얼른 전화했죠.

“오빠,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갔다며?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사람 미안하게.”

“내가 남의 아버지 모시고 간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 모시고 간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넓은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 책 좀 간당간당하게 반납하고 아침에 30분 늦게 일어나면 어때요. 그까짓 책 제가 대신 반납해 주고 약속 시간은 한 시간 일찍 거짓말하면 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있어? 들어가면서 장 봐서 갈게.”

“먹고 싶은 것보다 보고 싶은 게 있지.”

“영화 보고 싶다고? 오늘?”

“아니~ 집 나간 마누라 얼굴이 보고 싶어.”

뭐든지 급하게 빨리빨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사는 제가 그이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 반성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느긋한 거북이 남편과 살기 위해 매사에 조급한 제가 남편의 보폭에 맞춰볼 생각이예요. 아버지에게 삶의 기적을 안겨준 내 남편,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햄스터 사랑꾼

애청자

제 남편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랑꾼’입니다.

“정화야! 너랑 매일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싶은데 나랑 결혼해 주지 않을래?”

프러포즈하면서 꽃다발을 째하고 꺼내는데 그 멘트에 안 넘어갈 여자가 어딴겠어요? 제 남편은 엄청난 ‘애청가’가 되어 결혼기념일, 제 생일, 심지어 저희가 처음 연애를 시작했던 날까지 갖가지 기념일을 챙기면서 저를 놀라게 해 주곤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사랑이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아침 간만에 늦잠을 자는데 발가락 쪽이 간질간질하더니 종아리, 나중에는 엉덩이 쪽으로 뭔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벌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결에 무심코 손으로 엉덩이를 내려치려는데.

“동작 그만! 움직이지 마!”

“뭐야? 자기 왜 그래?”

“뒤척이면 안 돼. 애 깔리면 어떡하려고.”

그 말과 동시에 제 엉덩이에서 나는 익숙한 울음소리.

“우리 ‘골댕이’가 새벽에 좀 답답해하는 것 같기에 케이지 문을 열어놨거든. 근데 고새 올라왔네. 우쭈쭈~ 우리 골댕이~ 잘 잤떠음? 아빠가 보고 시퍼서 왔떠음~”

제 단잠을 방해한 주인공은 남편이 키우는 ‘햄스터’!

“아우~ 못살아. 애가 똥이라도 싸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불 빨래 당신이 할 거야? 당장 안 내려?”

“우리 골댕이는 그럼 아빠랑 같이 바닥에서 자면 되지. 자~ 밑으로 내려가자~ 조심~ 조심~”

남편이 처음으로 키워보는 반려동물이라 정이 가는 건 알겠는데 정도가 좀 심하더라고요. 햄스터를 스무 마리나 키웁니다. 그 종류만 해도 올 아이보리, 올 베이지, 베이지 밴디드, 세이블, 세이블 밴디드, 정글리안 등 저는 이름도 구분 못 해요.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햄스터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일일이 뽀뽀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

“우리 골댕이~ 잘 있었쨌? 아빠랑 뽀뽀 한 번 하자. 우리 석탄이도 해줄게요~”

장장 스무 번의 뽀뽀를 할 동안 저는 뒤에 가만히 서서 병풍이 되는 거예요. 햄스터들이 남편의 애정 공세에 지쳐 은신처로 피신을 한 후에야 남편도 저를 봐주는 거죠. 저 없이는

죽고 못 살 것처럼 굴었던 그 남자가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고민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너무 웃기다. 네 남편이 사랑꾼인 건 알았는데 그 사랑이 햄스터한테 갈 줄은 몰랐네.”

“나 진지하다니까. 그 사람 지금 심각해. 중증이야.”

“애, 햄스터가 무슨 죄니? 부부 사이가 그저 그러니까 정성을 거기에 쏟는 거겠지. 집에 야시시한 속옷 없어? 그런 거라도 입고 남편 좀 꼬셔봐. 스킨십이 관계 회복에 최고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가 소개해 준 가게에서 나름 파격적인 잠옷을 사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잠옷을 갖춰 입고 좋아하는 맥주에 마른안주까지 세팅해 냈죠. 집에 온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옷차림과 식탁에 놓여있는 안주들을 보고선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당신~ 진짜 감동이야.”

그러면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다가오는데 저는 싱글벙글 잠옷 자락을 휘날리면서 맥주 캔을 집어 드는 순간!

“이 해바라기씨! 우리 아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역시 투덜거리긴 해도 당신도 우리 아가들 사랑했던 거지? 기다려봐. 내가 바로 먹이고 올게.”

남편은 마른안주 속에서 해바라기씨만 신중히 골라내더니 곧바로 햄스터들이 사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오구오구~ 맛있썬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

음~”

혀가 반 토막 난 것처럼 ‘했썬음~ 먹어음~’ 하고 있는 남편의 애교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운명을 수긍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다 얼마 전 외국에서 살다 온 고모님께서 남편에게 줄 선물이 있다며 저희 집에 잠깐 놀러 오셨어요. 고모님이 건넨 상자가 조금씩 흔들릴 때부터 불안했는데 열어보니 난생처음 보는 독특한 외모의 햄스터가 한 마리 들어있었습니다.

“우와! 장모 햄스터잖아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햄스터를 그다지 안 좋아하는 제가 봐도 좀 매력적으로 생겼더라고요. 긴 갈기 같은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순종이라며 남편은 아이처럼 기뻐했죠.

“선물은 감사한데 저희 집에 햄스터가 너무 많아서요.”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애는 ‘품격’이 다르다고! 이걸 무조건 키워야 돼!”

안방에 거실까지 침범한 케이지를 보며 속에 천불이 났는데 어느 날 기어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결혼기념일. 남편이 기념일을 까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무슨 이벤트를 준비했으려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김없이 퇴근하자마자 햄스터에게 달려갔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오늘만큼은 참는다’ 그런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으아아아악!”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비명에

놀라서 달려가 보니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거예요.

“여보! 우리 폰젤이가 왜 이래? 왜 자기 집에 안 있고 여기 들어가 있어? 내가 분명 케이지에 넣고 문도 잘 닫아뒀는데.”

남편 손에 들려있는 장모 햄스터 폰젤이가 ‘나 죽겠수다’ 하는 얼굴로 네 발을 짝 뺀 채 숨을 헐떡이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상처가 난 걸 보니 다른 햄스터들에게 공격당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기념일이라 들떠서 온 집 안을 청소하다가 폰젤이가 살던 집에 세제를 실수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폰젤이를 다른 햄스터들 집에 넣어놓고 얼른 다시 분리한다는 걸 그만 깜빡했던 거죠.

“말해보라니까? 애가 왜 여기 있냐고?”

“그게 내가 오늘 낮에 잠깐 청소한다고 합쳐놨다가 다시 분리한다는 걸 깜빡했나 봐.”

“깜빡할 게 따로 있지. 다른 종끼리 이렇게 합쳐두면 애들끼리 싸움 나는 거 몰라? 우리 폰젤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미안해. 그렇다고 거실에 막 풀어둘 순 없잖아. 근데 당신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 건 알지? 일단 밥부터 먹자. 내가 맛있는 거 해놨어.”

“됐어! 밥을 무슨 정신으로 먹으라는 거야? 쳇 결혼기념일이 무슨 대수라고.”

순간 속이 확 굵히면서 화가 치밀더군요. 자기는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햄스터 예뻐하기만 하면 끝이지만 집에 냄새 안 배게 환기하고 케이지 청소해 주고 애들 짝

찍거리면 물, 먹이 떨어졌나 봐주는 건 제 몫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 배우자인지 아니면 햄스터 봐주는 집사인지 헷갈릴 지경인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줬건만 결혼기념일이 뭘 대수냐니요?

“자기, 말이 좀 심하다? 내가 지금까지는 유치하게 들릴까 봐 그냥 참았는데 솔직히 말해봐. 햄스터야, 나야?”

“내가 살다 살다 이제 별소리를 다 듣고 사네.”

“그래!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하지? 사람이랑 햄스터랑 비교가 돼? 비교가 되냐고?”

“비교가 되지. 왜 안돼! 사람보다 햄스터고! 그중에 최고는 장모 햄스터다. 왜!”

‘폰젤이 부상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결혼생활 처음으로 남편에게 중대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각방 쓰자. 나, 자기랑 이제 같이 못 자겠어. 나는 작은 방에서 잘 테니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골댕이, 폰젤이 침대 위에 올려놓고 껴안고 자든지 말든지.”

한 번도 각방을 쓴 적이 없는데 제 결심에 남편은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사람보다 햄스터를 더 사랑하는 남편은 필요 없다는 주의였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은 밤마다 제가 있는 방문을 푹푹 하며 열고 들어와서는 “오늘도 여기서 잘 거야? 이제 골댕이도 조용하고 애들 침대 위에 안 올리는데”며 눈치를 봅니다.

“됐네요. 얼른 문 닫고 가서.”

저는 일부러 더 매몰차게 대답하고는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거실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남편이 햄스터 케이지 몇 개를 거실에 꺼내놓고는 애들 사료와 톱밥을 쇼핑백에 채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갔더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울어? 뭔데? 왜 그러는데?”

“우리 골댕이 석탄이 종종이 친한 형이 데려가기로 했어. 집 앞으로 차 끌고 온대. 애들아, 잘 살아. 아빠가 미안해.”

남편이 아주 큰 결심을 했죠. 스무 마리 중의 열 마리를 믿고 맡길 만한 지인에게 분양하기로 했다는데 그제야 제 입가에서 미소가 새어 나왔어요. 그래요. 제가 알던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요.

“잘 생각했어. 당신 생각에도 스무 마리는 너무했지? 애들도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좋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햄스터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니까 이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자는 거다? 각방 그만 쓰는 거야?”

“아이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방 합쳐.”

남편은 햄스터 열 마리를 분양 보낸 후 제가 알던 예전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처음으로 깜박하고 저보다 햄스터가 좋다는 ‘실언’을 한 건 제가 평소 갖고 싶었던 가방을 선물 받는 걸로 통 치기로 했어요.

뭐 하나에 꽂히면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갖다 바치는 남편, 이정도면 정말 못 말리는 ‘사랑꾼’ 맞죠?

천천히 천천히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1월 말의 모임은 손주 대입 축하 턱으로 친구가 점심을 샀다. 집에서 출발해 한 시간 반 남짓 걸리는 강남까지 즐겁게 나선다. 일단 운전대를 잡은 자동차 안은 나 혼자만의 동굴이자 다락방이고, 어떤 음악이 나오건 간에 고래고래 따라 불러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거나 온갖 복잡한 잡념 속에서 생각이 튀어 다녀도 좋다. 인생이 제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운전을 좋아한다는데, 인생이 제 맘먹은 대로 풀리는 사람 손들어 보라지.

도착하니 테이블에 두쫘쿠 두 개가 단정히 놓여있다. 두바이 쫘득 쿠키.

“애, 두쫘쿠 그러는데 그게 뭐니? 왜 그렇게 난리라니?”

“난 몰라, 넌 먹어봤니?”

“하도 줄 선다고 난리라서 백화점 문 열자마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보통 크기와 작은 새알 크기의 두쫘쿠로 각각 한 개씩 사봤어. 한 사람에게 한 개씩만 판대. 우리 조금씩

잘라서 맛만 보자.”

“어디선 두 개씩 살 수 있다던데? 얼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500원, 5000원이었다는데 요샌 7500원부터 10000원까지도 받는다며?”

그날 모인 친구들 열 명 중에 나 빼곤 다 처음 맛본단다. 맛보기도 즐거웠는데 그 작은 새알 크기의 두쫂쿠와 보통 크기의 것을 가위로 열 등분씩 잘라 나누어 먹으니 웃겼다. 당 함량 높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지만(개당 약 400kcal, 밥 한 공기보다 열량이 높다) 조금씩 나누니 재밌었다.

결정적인 질문은 “근데 두바이엔 두쫂쿠가 없대며?”였다. 다들 웃음보가 터졌다. 웃음 끝에 날이 갈수록 한식이 편하다는 결론.

“단체여행 갈 때면 반찬을 잔뜩 싸 들고 오는 사람 꼭 있잖아? 유별나다고 생각했지만 밥 먹을 때면 죄 그 사람을 쳐다보다 조금만 달라고 부탁하게 되더라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점점 더해. 밥알이 들어가야 든든하고 무얼 제대로 먹은 것 같아.”

두쫂쿠와 호두과자를 가져온 친구 덕에 후식이 달달하니 좋았다. 열 명의 친구 중 둘이 고관절 수술과 발가락 골절로 천천히 걸었다. 또 명태회무침을 사람 수대로 가져와 나눔을

한 친구도 있어서 저녁 찬거리까지 얻어가니 다들 좋아했다. 두쫘꾸를 맛봐서 트렌드에 뒤지는 건 면했단다.

그날 저녁, 독일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파독 간호사인 동료가 아들 하나 남기고 떠났는데 화장해서는 보관소에 맡겨둔 채 어찌할 줄 몰라 장례에 대해 알려주었다. 재독 간호사 동료들과도 날을 잡았는데 일이 생겼다고 연락을 늦게 해 가까운 기차표도 날리고 안쓰럽단다.

그 친구 얘기가 치매 증상과 노환으로 동료 간호사들이 그 나라 요양원에 가면 긴 세월 살아온 독일말은 잊고 한국말만 해서 의사소통의 벽이 문제란다. 언젠간 고향에 가리라고 아끼고 아껴서 빌라 몇 채 사서 노후를 든든히 준비해도 고향의 일가친척이 오지 말라 해서 그리운 내 나라, 내 고향에도 못 가고 그대로 요양원 신세라고.

파독 간호사 출신인 내 친구는 그런 동료들 뒤통수까지 마음을 다해 해결해 준다. 김치도 담가주고 된장찌개도 만들어 먹인단다. 너무 귀한 마음 아닌가?

“나이 칠십 넘으면 몸에 해롭다느니, 이롭다느니 할 것 없어. 가리지 말고 잘 먹다 가면 돼. 그리고 무엇이든 천천히 해야 돼. 급하게 서두르다간 꼭 다치더라.”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천천히, 천천히.

일본 어학연수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2026년 새해 다짐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어 공부였다는 이야기는 이미 밝힌 바가 있다. 가족끼리 짧게 시간을 내서 여행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일본이었고, 현지에서 어설픈 영어로 주문하고 물건을 사고 하는 것보다 일본어를 배워서 당당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었다.

해서 한 달 넘게 일본어 공부를 이어오고 있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외우고 일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초부터 학습했다. 인사말과 더불어 자기소개, 장소와 물건들의 일본어 표현을 익혔다. 하루도 빠짐없이 앱에 들어가 하루 15분씩이라도 학습을 이어가는 스스로가 대견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들뜬 마음에 일본으로의 현장학습을 계획했다. 고등학생인 첫째를 제외하고 방학 기간인 둘째와 아내 그리고 나까지 셋이서 일본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가열차게 음식 주문하는 법, 예를 들어 “이거 세 개 주세요” 혹은 “이거 한 개랑 이거 두 개

주세요”라든지, 계산을 부탁하는 표현과 길을 묻는 표현을 중점적으로 외웠다. 우리는 세 명이기에 그 이상의 숫자는 준비하지 않았다. 확실히 일본어에 관심이 없던 시절 떠나던 여행 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이번에는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많이 읽으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 부산보다도 아래쪽에 위치한 다카마쓰라는 소도시였다. 낮 기온이 영상 8도 정도라기에 겨울한파가 몰아치는 한국보다 포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쌀쌀해서 당황했다. 그래도 일단 공항에서 도심까지 리무진버스를 타고 가야 하기에 확실하게 앞장서서 안내해야지 했는데 이미 너무나 곳곳에 친절한 한글 표지판들이 눈에 띄었다. 그 래 이제 시작이니까.

버스에 올라타서 시내로 들어가는 한 시간가량 나는 마치 이제 막 한글을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마냥 눈에 보이는 일본어 간판을 죄다 머릿속으로 읽어보려 했다. ‘저 글자가 아였던

가 오였던가, 저 글자가 탁음이 되면 발음이 뭐였더라’ 하며 머리가 지끈거렸다. 게다가 일본은 한자도 같이 쓰기에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만으로는 읽기 어려운 간판도 많았다. 비행기에 내려 버스를 타고 아직 도심엔 도착도 안 했지만 이미 지치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제 진짜 실전이다. 다카마쓰는 우동으로 유명한 도시이다. 우리 세 식구는 일본에서의 첫 끼로 우동 맛집을 찾았고 드디어 주문의 순간이 다가왔다. 아내와 아들은 나만 믿고 맡긴다며 응원했고, 점원이 다가와 몇 명이냐고 묻는 듯했다.

아빨싸 한 개 두 개 세 개만 외웠지 세 명이 일본어로 뭔지 모르는데? 일단 손가락으로 세 명을 표시했고 이어서 “고레 히타츠 아니 아니 히토츠 쿠다사이… 그리고 음…” 하는 순간 그 직원은 너무나 친절하게 영어로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영어에 능숙한 아내가 말을 가로채 주문을 마쳤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 이후 나는 너무나 친절한 앵무새마냥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만을 일본어로 외칠 뿐이었다. 역시 외국어 공부에 한 달이란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했다. 그냥 이참에 접어 두었던 영어 공부나 다시 시작할까….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내가 원하던 i-ONE의 등장

ALL NEW i-ONE Bank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5-7972호(2025.11.21) 유효기간(2026.11.20)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